

## 5·18 계엄군, 유족 만나 42년만에 눈물의 사죄

3·11공수여단 3명 광주 찾아 “진심으로 사죄”  
 오월어머니등 유가족 “이제라도 찾아와줘 고맙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42년 만에 희생자 유족을 만나 눈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

24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 3명이 지난 19~20일 동구 전 일빌딩245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다.

3공수여단 출신 김보 중사와 박모 중대장, 11공수여단 출신 최모 일병을 비롯, 5·18 최초 사망자인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추혜성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중사와 박 중대장은 자신들이 목격한 진압 과정 등을 증언하며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한다. 우리가 당시 너무 심했다”며 고개를 떨궈 사죄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임 여사도 “이제라도 찾아와줘서 고맙다. 무참하게 죽어간 내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선언과 증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며 “계엄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기억과 트라우마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도 “그동안 우리 유족어머니들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상대가 없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당신들도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와고 생겼는데, 우리도 피해자이지만 당신들도 또 다른 피해자임을 알고 있다”며 눈물로 서로를 위로했다.

조사위의 계엄군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죄의 뜻을 밝힌 일부 계엄군이 자원하면서 이뤄진 만남이다.

허연식 조사위 조사2과장은 “어머니들이 계엄군들의 사죄와 고백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더 많은 계엄군들이 마음을 열고 증언과 제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5·18 진압 계엄군, 유족 만나 사죄  
 지난 19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고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시

차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사실상 확정  
 민주당 부의장에 김영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24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낮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경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이 최다 득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경선은 5선 김진표(경기 수원구)·이상민(대전 유성구)·조정식(경기 시흥구) 의원과 4선 이상호(서울 서대문구) 의원 간 4표전으로 치러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중 1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각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167석의 원내 과반제 1당인 민주당의 의장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김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1947년생인 김 의원은 관료 출신 5선 의원으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재무부 세제심의관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에 역할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김도기 기자

### 민주당 텃밭 전남 무소속 바람 거세다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이 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풀꽃이 어느 지역에서까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계속된 잡음에 ‘반(反)민주’ 정서를 이용한 무소속 후보 연대가 구축되면서 민주당-무소속 후보 간 격전지가 10여군데에 이른다.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기초단체장 등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앞서거나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뉴스시 광주전남취재본부 등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

터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51.5%로 33.8%를 얻은 오하근 후보에게 17.7%포인트,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무안군수 선거 역시 무소속 김산 후보가 51.1%의 지지도로 29.7%를 기록한 최옥수 후보보다 2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장의 경우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48.5%,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40.0%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에서 박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주시장은 초박빙이다. 무

### 민주당 vs 공천배제 전·현직 무소속 후보 10여곳 격돌 일부지역 무소속 후보에 크게 밀려…초박빙 승부도

소속 강인규 후보 43.0%, 민주당 윤병태 후보 38.1%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내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민주당-무소속 대결구도의 승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성군수 선거 역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유두석 장성군수와 민주당 김한중 후보 간 정면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유 후보에 맞서 김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무소속으로,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을 얻은 장흥군수와 고흥군수도 격전지다.

장흥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김성 후보가 8년

만에 재결투하고, 고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송기근군수 간 리턴매치다.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출신 무소속 정인화 후보 간, 영광군수 선거도 민주당 김준성 군수와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 간 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4년 전 5명, 8년 전 8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당선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전남지역 격전지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대부분 전·현직 기초단체장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문한 여론조사는 지난 20

일부터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100%로 진행됐다.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유효가중)했다.

응답률은 광주 서구 6.1%, 목포 9.1%, 순천 9.2%, 나주 9.9%, 무안 11.0%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시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여수시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